

수출 증가에도 실속 못 챙긴 韓... 무역수지 4개월 연속 적자

산자부 7월 수출입 동향

수출 607억 弗, 수입 654억 弗

높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등 영향
이창양 장관 “정책지원 필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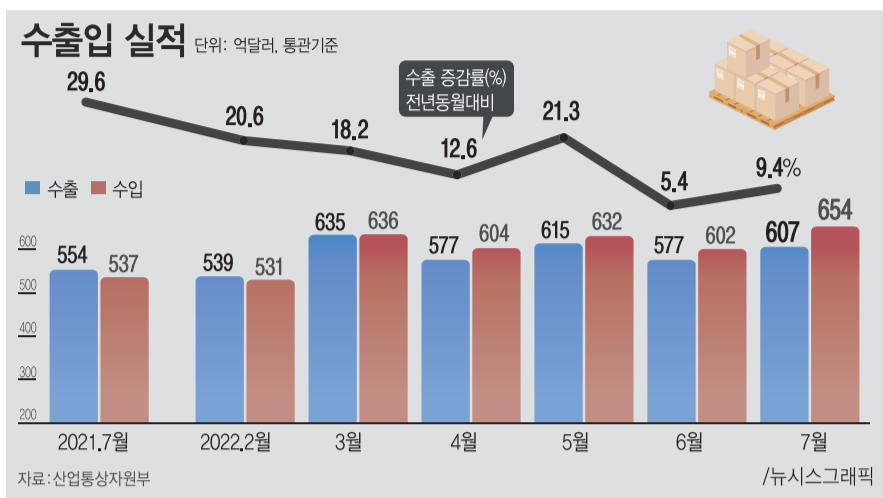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주요국 건축 정책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 에너지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가 이어지고 무역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종합 수출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7월 최고 실적을 약 50억 달러 상회하는 607.0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9.4%)를 기록하며 기존 7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 대비 14.1% 증가하며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수출액은 작년 3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기록을 갱신하며, 7월 누계 수출액도 4112억 달러로 지난해(3586억 달러)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증가율은 조업일수 감소(24.5일



→ 23.5일)와 전년도 기저효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건축 정책 등 어려운 여건에도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21개월 수출 플러스는 역대 3번째로 긴 기간이다.

◆석유제품·반도체·차, 급증세 견인

품목별로 석유제품 수출은 역대 1위, 반도체·자동차 등은 7월 중 1위다. 15대 주요품목 중 이들 3개 품목을 포함해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한 석유제품·자동차에 더해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7월 최고실적 달성을 견인했다.

ICT 품목 중 반도체는 2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로 15개월 연속 100억달러

의 호조세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7월 중 1위 실적을 기록하며 7월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D램·낸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시장인 중국·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일부 위축된데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소비·생산 둔화 등 영향으로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감소했다.

완성차는 전년동월비 개선된 차량용반도체 공급상황 등에 힘입어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시장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처음으로 50억달러대를 달성했다. 자동차부품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요시장 내 완성차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생산 확대 등에 따른 시장 확대에 힘입은 이차전지는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을 경신했고 바이오·SSD 외 시스템반도체 등 여타 품목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바이오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던 진단키트 수출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줄어들면서 감소로 돌아섰다.

◆중국 감소, 美 등 그외 주요시장 호조... 시장 재편중

수출지역별로는 아세안·미국·유럽연합 등 주요시장 수출은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견인했다. 최근 본격화된 중국 경기 둔화세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외 대다수 품목 수출이 줄어들며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0.8%)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경제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경기둔화 흐름을 보이는 일본 수출은 감소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발 불안정성이 심화된 중남미 수출도 줄었다.

높은 에너지·원자재 가격으로 수입액은 650억 달러를 넘었다. 특히 2021년 6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수입증가율(+21.8%)이 수출증가율(+9.4%)을 상

회하며 7월 무역수지는 -46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600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급증 등의 영향으로 월 기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7월 기준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85.0억 달러로 1년전(97.1억 달러) 수준보다 90억 달러 가량 상회했다.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 영향이 더해지며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6월 이후 수출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수출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무역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와 함께 우리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8월 중 종합 수출 대책 발표를 언급하면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무역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창용 “기준금리 인상, 지속 필요 판단”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 기획재정부 전체회의 참석
예상보다 큰 폭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인플레이션 고착화 시 경제 전반 피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국내 경기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왔지만, 앞으로는 하방 위험이 우세한 가운데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8월 임시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악화되는 모습”이라며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높아졌으며 근원 및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크게 상승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고, 물가상승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큰 폭의 인상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커지면서 물가 오름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다. 그 결과 근원 및 기대 인플레이션도 크게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간으로는 5월 전망수준(4.5%)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경기는 상반기 중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주요국 금리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내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의 경우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세 둔화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전망 수준인 2.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와 성장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증대됐지만 현 시점에서는 물가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져 2차 효과가 증폭되면서 고물가가 고착될 경우 경제 전반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이자상환부담도 커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통화정책 운용 현황 및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에서 물가 대응에 실패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된다면 향후 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경제 전반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1.75%포인트(P) 인상해 왔다. 금융불균형 및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에는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일명 ‘빅스텝’도 나선 바 있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

이 총재는 “한은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0.25%로 유지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출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한종희, 사내 게시판 통해 임직원 소통

(삼성전자 부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DX부문장)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사내 게시판 ‘나우’(NOW)에 올라온 직원 글 가운데 지난달에만 4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JH입니다.’로 시작하는 ‘JH Note’(노트) 댓글을 올렸다. ‘JH’는 한 부회장의 영문 이니셜에서 따온 명칭이다.

한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회식이 싫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 직원의 글에 “여러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회식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입장 차이가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된다”며 “회식문화 개선을 위해 부서



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부회장은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 아니라 건전하고 즐겁게 업무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친해지고 이해하는 단합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남겼다.

한 부회장은 임직원들과의 소통 강화에 지속 힘쓰는 모습이다. 한 부회장은 반기별로 타운홀 미팅 형식의 임직원 행사 ‘DX 커넥트’를 열고, 매달 소수 직원과 함께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CEO 원 테이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천장 없는 금리... 주택가격 하방 압력 작용

>> 1면 ‘금리 3%대 예고...’서 계속

하지만 지난 6월 같은 면적 거래가격(5억 1000만원) 대비 3000만원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 엘스’는 같은 기간 전용면적 84㎡가 24억원에서 22억 5000만원으로 한 달 만에 1억 5000만원 떨어졌다.

오지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 조정이 장기화되는 것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대출금리와 향후 불확실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정책금리의 인상 속도와 종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예상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6월과 7월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기준금리(2.25~2.50%)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2.25%)를 역전하면서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2.75%에서 3%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